

# 신숙주·하륜·정도전... 조선 위인들이 들려주는 직장 생존기

“사내정치라는 단어에는 부정적ニュ앙스가 담겨있다. 실력과 상관없이 학연, 지연 등으로 파벌을 형성하여 불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때문이다. 공공연하게 사내정치가 이루어지는 회사에서는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을 자신의 실력이 아닌 사내정치 탓으로 돌리게 된다. 일단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회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부정함 수혜자로 보이는 개인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품을 수가 없다.”(본문 중에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조선 직장인 열전**  
신동욱 지음

물들을 통해 배우는 직장에서의 현명한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다.

조선왕조 500년을 이끈 이들은 왕과 '고용된' 여러 대신들이었다. 사실 상 대신들은 녹(祿)을 받는 직장인이었다. 시대는 다르지만 고용된 이들은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 '직장'이라는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다.

저자는 처세의 대가로 하륜을 꼽는다. 실력과 처세 능력을 갖췄으며 누구보다 조직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이다. 그는 신문고로 도입하고 태조실록 편찬에도 참여했으며 좌의정을 역임했다.

조선 건축 초기, 정도전은 정적을 배제하고 숙청을 단행했다. 이성계는 정도전에 밀려나 있던 하륜과 권근에게 왕조를



조선시대 대신들은 왕에게 '고용된' 이들로, 이들은 매일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서울옥션 경매에 나온 궁중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 책기도.

위해 함께 일할 것을 부탁한다. 하륜은 이성계가 병석에 눕자 충청도 관찰사로 발령난다. "이방원과 하륜이 결탁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정도전의 견제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하륜은 뭔가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어느 날 잔치를 연다. 이 자리에 정도전의 견제를 받던 이방원도 참석한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하륜은 취한 척 이방원에 다가 술을 따르다 엎드리고 만다. 이방원이 화를 내고 가버리자, 하륜이 그를 따라가 말을 건넨다. "신덕왕후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주상께서 병석에 누워있으신 지

금이 기회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렸던 하륜의 치밀함이 먹히는 순간이었다. 이후 하륜은 충청도에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겸손으로 약점을 매운 맹사성 이야기도 흥미를 끈다. 좌의정과 우의정, 이조판서와 대사헌을 역임한 그의 힘은 '겸손'이었다. 그의 부친 맹희도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다. 조선 왕조에 충성할 수 없다고 각오하고 피신해버린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다.

"고려 왕조는 더 이상 없다. 마침 네 스승인 권근이 너의 출사를 권하고 있으니 새 왕조에 몸을 담아 백성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라.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은 너의 할아버지와 나로 충분하다."

조선왕조에 들어온 초창기에 그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겸손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처신"으로 점차 신뢰를 얻었다.

"맹사성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서 불필요한 꼬투리가 잡히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처신하되, 마땅히 해야 할 말은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아버

지의 가르침대로 오직 백성을 위해 정치하겠다고 맹세했다."

이렇듯 책은 직장인의 관점에서 조선의 인물들을 보면서 역사 속 선배들의 다양한 처세술을 소개한다.

저자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 속에서 직장 내 상사, 동료, 선배라는 대인관계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되고, 평판 관리나 사내정치처럼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국민출판·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 0 영 ZERO 쉼

## 김사과 지음

김사과는 폭력성과 범죄가 판을 치고 자본과 권력이 작동하는 불의한 현실을 특유의 문체로 그려내는 소설가다. 세계를 응시하는 작가의 시선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졌다는 게 문단의 평가다.



김사과가 이번에 펴낸 신작 소설 '0 영 ZERO 쉼'은 작품의 제목만큼이나 눈길을 끈다. 이번 소설은 1998년 '소설의 향기, 소설의 본향'이라는 슬로건으로 첫 선을 보인 '소설 향'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다. 침체된 문학출판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향'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처럼, 한 편 한 편의 소설들이 주는 즐거움과 위로를 담고 있다.

'소설 향' 시리즈에는 김사과를 비롯해 김업자, 임현, 오한기, 정지돈, 백수린, 김이설, 윤이형, 조해진, 정용준, 최수철, 전성태 등 젊은 작가들과 중견작가들이 고르게 포진해 있다.

이번 김사과의 '0 영 ZERO 쉼'은 사소하면서도 은밀하게 드리워진 폭력성에 초점을 맞췄다. 주인공 '나'는 타인을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식인의 세계관을 지닌 인물이다. 나에게 있어 생존의 조건은 먼저 타인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무너뜨리는 것뿐이다. 한쪽이 포식자가 되면 다른 한쪽은 그 반대의 경우인 먹히게 되는 필연의 세계에서 나는 은밀한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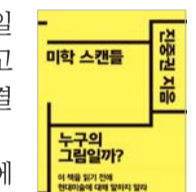
한편 책에는 김사과와 평론가 황예인의 대담이 수록돼 있다. '더 나쁜 쪽으로' 진화한 작가의 문제적인 인물과 폭력적인 일상사에 대해 열린 지평에서 논의하는 장이다. 단순히 이분법적인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방식이 아닌 나를 둘러싼 역할 관계와 식인의 세계에서 악이 곧 구원이 되는 아이러니에 대한 사유가 담겼다. <작가정신·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미학 스캔들

## 진중권 지음

지난 2016년 연예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일명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인데 당시 검찰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미학자 진중권은 "그 사건의 불편한 기억과 더불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까지 들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예술사 관점으로 살펴보는 '그림 대작'에 관한 책을 펴냈다. 진중권 말대로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은 "본의 아니게 우리 미술계에 한 가지 중요한 의제를 던져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발간한 '미학 스캔들'은 예술사를 '저자성이라는 관념의 변화' 관점에서 살피는 작업이다. 저자는 미술 작품의 물리적 실행을 '조수'에게 맡기는 것은 르네상스 이래 서양미술의 전통을 알리고 대중들 사이에서 이미 '신화화'된 여러 화가를 중심으로 펼쳐졌다고 본다. 미켈란젤로, 루벤스, 렘브란트는 물론이며 조수를 전혀 쓰지 않았다고 알려진 푸생과 쿠르베의 숨은 이야기까지 논거로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회화가 가장 회화적이었던 바로크 시대에도 거장들은 서명이 담기는 작품의 '물리적 실행'을 조수의 손에 맡기곤 했다고 설명한다. 화가가 그림을 '손수' 그리는 '천작'의 관행은 19세기 후반 인상주의 시대에 이르러 보편화했다는 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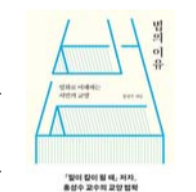
진중권은 "영원불변한 예술의 보편적 '본질' 따위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예술의 모든 장르에 공통된 특징은 없다고 강조한다. 예술의 보편적 특징을 가정하는 '본질주의 오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천년의 상상·1만89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법의 이유

## 홍성수 지음

법의 여러 가지 개념과 정신을 영화 속의 다양한 소재로 풀어낸 책이 출간됐다. '법의 이유'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법적인 쟁점을 발견하고 영화가 제시하는 법적인 상황을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가까운 일상에서 법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인 저자 홍성수는 한국법철학회, 한국법사회학회,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등에서 활동중이며 '말이 같이 될 때'를 집필하기도 했다.

이 책은 저자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의했던 과목인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저자는 영화를 "구체적인 상황과 이와 결부된 법적인 한계-문제-해결을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라고 말한다. 책은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과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국가와 형벌'은 국가 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사회의 안녕이라는 목적 하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위협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부 '권리와 자유'에서는 민사,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장애인 인권 등 좀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문제에서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법적인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개인들이 공존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들과, 인권의 확대를 위해 개인 단위에서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르테·1만70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